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 전·의경을 대상으로 -

김종임¹⁾ · 한선옥²⁾ · 윤혜선³⁾ · 이지현⁴⁾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자아존중감은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의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과 안정, 사랑과 소속감 다음으로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자신에 대한 독립심, 자신감, 자존감과 타인의 인정, 존경, 평가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Kozier, Erb, Berman, & Snyder, 2004; Rosenberg, 1965).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가치를 인정받을 때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 그러한 경험이 없거나 적을 때는 열등감, 무가치함,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Jang & Shin, 2002; Rosenberg, 1965).

청년기는 보통 20세 전후를 말하며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로서 신체적인 강성함과 더불어 심리사회적인 발달 과정을 하는 시기이며 특히 이 시기에는 사고와 자살이 주요한 건강문제로 알려져 있다(Kozier, Erb, Berman, & Snyder, 2004). 최근들어 2005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당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자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기 남성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군복무이다. 군 복무를 하는 전·의경들은 군 복무를 하는 일반 정규군과는 다른 상황에서 근무하는 준군사조직의 일원이다.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법이 제정되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후 치안업무를 보조하게 되었으며 1982년 12월 31일에 의무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치안보조를 담당하게 되었다. 인생주기동안에 청년기의 전·의경들은 이상주의와 추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기로 건강한 성인을 준비하는 기간을 군대라는 조직에서 지내게 되는데 (Kim, 1999), 대부분의 청년들은 군 복무중에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전·의경들은 군인에 버금가는 병영생활을 함은 물론 현역군인과 비교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나 복지수준은 더욱 열악하며 구타사건과 같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은 6배나 높아 복무이탈과 자살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You, 2005).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우울이 나타나기 쉬운데 전·의경들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1999).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우울이 발생하게 되고 자살행동을 더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우울은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Chang, Sohn, & Cha, 2006; Hong, 2004; Chong & Chong, 2007)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로서

주요어 :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

- 1)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2)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captinhso@hanmail.net)
- 3) 사단법인 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회장
- 4)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 조교

투고일: 2008년 1월 2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19일

가능성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발달과정 시기인 청년기의 정서적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 전·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군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관계(Kim, 1999), 인권(You, 2005), 사기(Shin, 2004)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전·의경들의 건강한 군복무를 위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딘지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여려는 노력도 많지 않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의경 복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자살생각의 기초자료나 이들 변수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전·의경을 대상으로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와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년기의 건강한 군복무를 돕기 위해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의경을 대상으로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의경을 대상으로 청년기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며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25세 사이의 청년으로 S 지방 경찰청에 소속된 전·의경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 참여 대상자는 총 180명이었다.

연구 도구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자아존중감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 Self-Esteem Scale)를 Jeon(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적인 문항, 5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우울

Radloff(1997)가 우울증의 1차 선별도구로 개발한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CES-D)를 Cho와 Kim(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4점 척도(0-3점)의 20개 문항으로 역방향 문항 3개는 역으로 환산하였다.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와 Kim(1993)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역학용 절단점은 21점, 주요우울증 절단점은 25점을 제시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자살생각

Reynolds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살생각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Shin(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척도(0-6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18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1992)의 연구에서는 62-76점, 77-90점, 91점 이상을 또래 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집단, 상당히 많이 하는 집단, 매우 많이 하는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이며, S 지방 경찰청의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하여도 좋은지 허락을 득한 후 연구대상자를 만

나서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 및 연구 목적으로만 연구결과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188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스스로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총 18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α 는 0.05로 검정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19세에서 25세의 범위로 평균연령은 20.82세였다. 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 이하 및 4년제 대학 재학이 112명(62.2)으로 가장 많고 고졸이하가 54명(30%),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14명(7.8%)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122명(67.8%)이었으며 없는 경우가 58명(32.2%)이었다. 계급은 이경 61명(33.9%), 일경 87명(48.3%), 상경 28명(15.6%), 수경 4명(2.2%)의 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간은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 8.38개월이었다. 근무부서는 전경대와 주요시설 경비대가 각각 90명(50.0%)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최소 10점에서 최고 40점의 범위로 평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Mean±SD
		n=180	
Age(years)	19	6(3.3)	20.82±0.91
	20	64(35.6)	
	21	76(42.2)	
	22	28(15.6)	
	23 or more	6(3.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ower	54(30.0)	
	In college or graduation / In university	112(62.2)	
	Over graduation	14(7.8)	
Presence of religion	Yes	122(67.8)	
	No	58(32.2)	
Class	Private	61(33.9)	
	Private first class	87(48.3)	
	Corporal	28(15.6)	
	Sergeant	4(2.2)	
Period of service			8.39±5.15
Assignment position	Combat police corps	90(50.0)	
	Guards for important installations	90(5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N=180)

Variables	Range	Mean±SD	Classification	Frequency(%)
Self-esteem	10.00- 40.00	31.48± 5.08		
Depression	0.00- 50.00	16.05±12.50	20 or less	127(70.55)
			21-25	14(7.78)
			25 or more	39(21.67)
Suicidal ideation	0.00-139.00	11.01±17.99	61 or less	174(96.66)
			62-76	2(1.11)
			77-90	3(1.67)
			91 or more	1(0.56)

군 31.48점, 우울 정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50점의 범위로 평균 16.05점, 자살생각 정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139점의 범위로 평균 11.01점이었다. Cho와 Kim(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절단점을 기준으로 우울 정도를 분류하면 지역사회 역할 절단점인 21점-24점은 14명(7.78%)이고 주요우울증 절단점인 25점 이상은 39명(21.67%)이었다. Shin(1992)의 연구에서는 62-76점, 77-90점, 91점 이상을 또래 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집단, 상당히 많이 하는 집단, 매우 많이 하는 집단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기준으로 분류하면 또래 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62점 이상의 점수를 보이는 경우가 6명(3.34%)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우울은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경대 근무를 하는 대상자가 중요시설경비대 근무자보다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4.60, p=.03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의경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자살생각($r=0.5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우울과

자아존중감($r=-0.38, p<.001$), 자살생각과 자아존중감($r=-0.3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과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180)

Variables	Self-esteem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Self-esteem	1	-.384***	-.389***
Depression		1	.528***
Suicidal ideation			1

*** $p<.001$

논 의

본 연구는 청년기 남성인 전·의경의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전·의경들의 자살예방 및 건강한 군복무를 위한 중재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전·의경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31.48로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 중 연령대가 비슷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 Kim과 Son(2006)의 연구에서의 29.11, Kim(2005)의 연구에서의 30.37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았다. 전·의경의 부대생활은 환경적 제약과 통제된 생활로 인해 자아존중감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아존중감에는 또래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켜 가면서 적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므로(Kim & Lee, 2007) 전·의경의 군복무 적응에 긍정적 영

<Table 3>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elf-esteem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years)	20 or lower	31.77±4.45			17.07±12.34			10.30±13.53		
	21	31.34±5.66	.19	.827	16.59±13.26	1.52	.222	12.33±21.95	.37	.694
	22 or more	31.21±5.06			12.67±10.73			9.56±16.59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31.90±4.81			17.30±13.08			8.00±11.02		
	In college or graduation / In university	31.35±5.27			15.85±12.77			13.03±21.06		
	Over graduation	30.85±4.68	.33	.722	12.92± 6.87	.71	.493	6.07± 7.25	1.98	.142
Presence of religion	Yes	31.86±5.32			14.86±12.30			11.15±19.55		
	No	30.88±4.53	1.46	.230	18.82±12.74	3.92	.053	10.74±14.75	.02	.888
Class	Private	32.08±4.71			17.64±12.23			10.89±14.02		
	Private first class	31.16±4.78	.64	.529	16.29±13.25	1.96	.145	11.16±19.39	.01	.994
Assignment position	Corporal/Sergeant	31.22±6.46			16.05±12.50			10.84±21.13		
	Combat police corps	31.29±4.97			18.11±13.85			13.34±22.25		
	Guards for important installations	31.63±5.22	.20	.656	14.13±10.66	4.60	.033	8.81±12.16	2.84	.094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있어서 청년기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McCarthy & Hoge, 1982)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제공을 위해(Kim & Son, 2006) 개인에 대한 존중과 수용, 관심을 쏟음으로써 그러한 복무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의경의 우울은 총 60점 만점에 평균 16.05점으로 Cho와 Kim(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절단점을 기준으로 우울 정도를 분류하면 지역사회 역학용 절단점인 21점 이상은 우울하다고 판단되어 대상자의 29.45%가 우울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의경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우울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정도는 근무부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의경의 학력, 종교, 계급간 차이가 없었던 Kim(199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전경대가 중요시설경비대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은 각종 시위 진압작전에 투입됨으로 인해 시민과의 대치 상황에서의 정서적 갈등이나 부상의 위험성이 존재하며(You, 2005)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오는 과중한 부담에서 기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 정도는 총 180점 중 평균 11.01점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Hong과 Chung(1999)의 연구에서의 29.40보다는 낮은 편이나 Shin(1992)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자살생각 정도를 분류하면 또래 집단에 비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위험군이 6명(3.34%)이었다. 선행연구 결과(Reynolds, 1988)에서 자살생각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이 미래 자살행동의 일차적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살행동은 자살생각에서 자살계획, 그리고 자살의 시도에 이어 죽음에 이르는 자살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체이므로(Park, 2007) 이러한 위험군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서부터 중재가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r=-0.38$),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r=-0.39$)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울과 자살생각($r=0.53$)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과 우울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손상된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Evans, Hawton, & Rodham, 2004; Lee, Kweon, & Kim, 2007) 전·의경의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 손상과 우울이 잠재적 위험요인이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며, 긍정적인 자기평가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우울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Kim과 Lee(2007), Chang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고 상

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할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성장발달 단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명하복의 통제된 생활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우울은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울 감소를 위한 자아존중감 증진 전략의 활용과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표준화점수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자살의 고위험 집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재 등을 통하여 군복무중인 청년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는 청년기인 전·의경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S지방 경찰청에 소속된 전·의경 180명을 대상으로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우울은 Radloff(1977)의 도구를 Cho와 Kim(1993)이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S-D)를 사용하였으며 자살생각은 Reynolds의 자살생각척도(SIQ)를 Shin(199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1.48(± 5.08)이었고 우울은 평균 16.05(± 12.50)로 우울증 진단점수인 21점 이상이 53명(29.4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은 평균 11.01(± 17.99)로 청소년집단에서 자살생각이 많다고 연구된 62점 이상이 6명(3.34%)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경대 근무를 하는 대상자가 중요시설경비대 근무자보다 우울이 유의하게 높았다.
-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보면 우울과 자살생각($r=0.5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우울과 자아존중감($r=-0.38$, $p<.001$), 자살생각과 자아존중감($r=-0.3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과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의경들의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켜 자살 생각을 낮추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전·의경뿐 아니라 현역 병사들과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일반 청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청년기 건강을 높이기 위한 전략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군복무중인 전·의경 및 병사들의 정서적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의경 및 병사들과 일반 청년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자살생각을 비교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청년기 전·의경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직·간접적인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특수한 환경에 놓인 청년기 전·의경들의 우울을 낮추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ang, H. K., Sohn, J. N., & Cha, B. K. (2006).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chronic pain, pain coping, fatigue,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elders. *J Korean Acad Fundam Nurs*, 13(1), 86-95.
-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32(3), 381-399.
- Chong, Y. J., & Chong, Y. S. (2007).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deconstruction, perceived support from friend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Korean J Dev Psychol*, 20(1), 67-88.
- Evans, E., Hawton, K., &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 A systemic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 Psychol Rev*, 24, 957-979.
- Hong, Y. S. (2004).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self-esteem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tudies on Korean Youth*, 15(2), 153-182.
- Hong, N. M., & Chung, Y. S. (1999).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Korean J Soc Welfare*, 37, 449-473.
- Jang, H. J., & Shin, Y. H. (2002). The correlational analysis between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elf-care agencies among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2(2), 186-195.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30.
- Kim, H. J., & Son, C. N.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Health Psychol*, 11(2), 345-361.
- Kim, H. Y.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on the military life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Focusing on auxiliary police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S. Y. (2005).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tendenc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focused on the APS-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S. Y., & Lee, J. I. (2007). A study on aging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middle-aged people. *J Korean Acad Fundam Nurs*, 14(1), 103-109.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June). Mortality statistics. Retrieved November 6, 2007, from http://www.kosis.nso.go.kr/chi-bin/sws_999.cgi.html.
- Kozier, B., Erb, G., Berman, A., & Snyder, S. J. (2004). *Fundamentals of Nursing, Concepts, Process, and Practice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Lee, C. S., Kwe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6(1), 32-40.
- McCarthy, J. D., & Hoge, D. R. (1982). Analyses of age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adolescent self-esteem. *Dev Psychol*, 18(3), 372-379.
- Park, B. 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J Korean Living Sci Assoc*, 16(3), 505-522.
- Radloff, L. S. (199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3), 385-401.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hin, S. W. (2004). *A study on the schemes to stimulate auxiliary policemen mor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You, J. D. (2005). *Study on South Korea auxiliary policeman's human rights, actual conditions and research about protection w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Relationship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Youths - Focus on Auxiliary Policemen -

Kim, Jong Im¹⁾ · Han, Sun Ok²⁾ · Yoon, Hye Sun³⁾ · Lee, Ji Hyun⁴⁾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 Full-time Lecturer,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3) Chair of Board, Dasom Woman Family Culture Art Association

4) Assistant Teacher,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and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youths in the auxiliary police force. **Method:**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February 1 to March 25, 2007. The participants were 180 youths from 19 to 25 years old (average 20.82 years old) who were auxiliary policem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2.0 program. **Results:** Six of the auxiliary police (3.34%) reported critical scores in suicidal ide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pression according to work area. Self-estee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r=-0.38$, $p<.001$) and suicidal ideation ($r=-0.39$, $p<.00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r=0.53$,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auxiliary policemen hav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refore,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and examine nursing interventions the enhance self-esteem, so tha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can be minimized.

Key words : Self-esteem, Depression, Suicid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Sun Ok

Department of Nursing,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O. Box. 78-502, Chumok-dong, Yuseong-ku, Daejeon 305-153, Korea

Tel: 82-42-878-4551 Fax: 82-42-861-8132 E-mail: captinhso@hanmail.net